

중국경제현안

브리핑

제02-22호 / 3월 1일

중국 人民銀行長, 금융개혁 지속과 換率 안정 강조

1. 개요

□ 다이상룡(戴相龍) 중국인민은행장이 全人代 회의기간인 3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화정책, 금융개혁, 인민폐 환율, 재정적자, 대만과의 금융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.

- 다이 행장은 통화량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통화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고, 기업대출의 증가속도가 떨어진 것은 통화정책의 문제가 아닌 은행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함.

○ 또한 이러한 엄격한 대출심사로 부실채권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함.

- 인민폐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절상 압력이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, 이는 중국의 엄격한 외환관리정책에 기인하고 있는바, 향후 외환자유화에 대비하여 인민폐를 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.

- 재정적자 문제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 간접적인 부채를 포함한 정부 채무가 GDP의 60%에 달하고 있지만, 경제성장률이 채무증가율을 상회하고

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.

2.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

□ 통화공급량과 통화정책에 대한 논쟁

- 중국 정부는 통화량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안정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 일부에서는 긴축통화정책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.
- 지난해 통화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에 비해 약 6% 포인트나 높았으며¹⁾, 기업 예금도 16% 증가하였음.
- o 다만 기업 대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엄정한 대출심사로 불량대출이 줄어들고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임.
- 한편, 지난 2월 21일 실시된 제8차 금리인하는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고,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.

□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대외개방

- 금번 주룽지 총리의 <정부공작보고>에서는 금융개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, 금년도 금융개혁의 방안은 지난 2월 개최된 금융공작회의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국유은행 개혁을 포함한 일련의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임.
- 금융개혁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. 또한 2006년 말까지 외국은행이 모든 사업분야에서 내국인대우를 받게되므로 금융산업 개혁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.

1) M_2 증가율(14.4%) - {GDP 증가율(7.3%) + 물가상승률(0.7%)} = 6.4%포인트

□ 인민폐 환율 문제

- 인민폐가 장기적으로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함. 7%대의 경제성장과 2월말 현재 2,23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인민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있음.
- 일부 해외기관에서는 PPP 방식으로 평가한 인민폐 환율이 달러당 3원에 달한다며 평가절상을 주장하고 있지만, 자본계정의 자유화가 실시되면 외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평가절상을 논하는 것은 곤란함.

□ 인민폐의 자유태환 가능성

- 인민폐의 자유태환 문제는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중국은 국력, 자본항목의 자유태환, 안정된 은행시스템 등 3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비점이 많음.
- 한편,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저축액을 별도의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홍콩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문제는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는 없으나, 증권감독위에서 구체적인 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
□ 은행의 부실채권

- 작년말 현재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전체 대출액의 25.4%임.
- o 이는 4단계 대출 분류방법에 의해 작성된 것임. 은행의 부실채권은 매월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의 지적과 같이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불가능함.
- o 최근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대출심사가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방증함.

□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

- 중국의 금년도 재정적자가 처음으로 GDP의 3%를 초과하였다고는 하나,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.
- o 사회보장기금, 지방정부 채무,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등 간접적인 국가채무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채무가 GDP의 60%를 초과하지는 않음.
- 중요한 점은 중국의 GDP 증가 속도가 이들 채무의 증가 속도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GDP 대비 채주 비중은 점차 하락한다는 것임.

□ 농촌경제 발전을 위한 중앙은행의 지원책

- 금년도 금융서비스의 중점은 국채프로젝트 지원 이외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농촌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에 둘 것임.
- 농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농업 효율화, 농촌 산업단지 개발, 농촌지역의 소도시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할 것임.
- 소규모 사업과 농가 대출은 농촌신용사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.
- o 농민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, 동부 자금의 서부 지원, 중앙은행의 신용사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

□ 대만은행의 본토 진출

- 인민은행은 대만의 8개 상업은행에 대해 중국내 대표처 설립 신청을 접수했으며, 현재 두 개 은행에 대해 각각 上海와 江蘇省 昆山에 대표처 설립을 비준하였는바, 대만 은행의 본토 진출은 양안간 금융협력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.

- 향후 양안 금융기관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, 은행 감독기관의 정보교류와 자금협력도 강화되기를 희망함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금번 기자회견에서 다이상룽 행장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향후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음.

- 작년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은 연초대비 3.8%포인트 하락한 25.4%를 기록함.
- 또한 다이 행장은 이례적으로 간접적인 국가채무까지 공개하며 정부채무의 규모가 GDP의 60%에 달한다고 언급하였는바, 이 역시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자신감을 나타낸 것임.
- 따라서 만일 금년에도 부실채권 비율이 중국정부의 계획대로 2~3%포인트 하락한다면 중국의 금융개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.

□ 통화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경기부양과 관련,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, 확대통화정책은 기업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그리 적절치 않음을 시사하였음.

- 즉, 통화량을 늘리기보다는 정부와 은행이 철저한 대출심사로 부실기업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,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농촌부문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.

□ 한편, 인민폐 환율과 관련해서는 자본계정의 자유화 이전에는 환율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바,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없다면 현재의 환율 수준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. (***)